DJ 납치사건, 뮤지컬로 만난다

'헤이 미스터 디제이' 서울시뮤지컬단 창작 공모 당선

28~29일 세종문화회관 쇼케이스… 투자 가능성도 타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납치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제작된다.

2013 서울시뮤지컬단 창작 공모사업 '힘내라 우리 뮤지컬' 당선작 '헤이 미스터 디제이'가 오는 28~29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힘내라 뮤지컬'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단장 유인택)이 민간창작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뮤지컬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의 기획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헤이 미스터 디제이'를 포함, 쥬크박스 뮤지컬 '문나이트', '경성딴싱퀸' 등 모두 세편이 선정됐다.

'헤이 미스터 디제이'는 '뮤지컬 리딩 공연' 형식으로 무대에 오른다. 리딩 공연은 본격적인 뮤지컬 제작에 앞서 무대 위에 올려졌을 때의 대략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공연을 말한다.

뮤지컬 넘버는 주인공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창작곡과 함께 인물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당시 시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1970년대의 금지곡이었던 '그건 너',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을 변형해 활용한다.

2009년 봄, 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장례식장에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은 침묵에 잠긴다. 마주 보이는 옥상에선 훈장이 가득 달린 군복을 입은 노병 강건호가 장총을 들고 김대중을 조준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작품의 배경은 1972년 10월로 바뀐다. 한 무리의 검은 양복들이 나타나 야당의원들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삼십대 서슬 퍼런 중정요원 강건호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현 정권의 최대 라이벌 김대중을 특별 관리하라는 명을 받는다. DJ를 향한 한 남자의 전쟁은 이렇게 막을 올린다.

대본은 지난해 서울시뮤지컬단이 만든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과 올해 부산영화의 전당이 11월께 무대에 올릴 뮤지컬 '친구'의 대본을 쓴 이다윗씨가 맡았으며 연출은 이진숙씨다. TV에서도 활동했던 김늘메씨 등 10여명의 배우가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

세종문화회관측은 이번 쇼케이스 무대에 일반 관객 뿐 아니라 공연 전문가 등 제작자, 광주시, 전남도, 목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볼 예정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연극 '안티고네'는 국립극단, 안산문화예술회관, 대전 예술의 전당 등이 공동제작한 바 있다.

1973년 일본에서 납치됐다 살아 돌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이진숙 연출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보다는 그가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만들고 싶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며 "어설픈 납치 행각을 블랙코미디로 표현, 재미도 있고 납치극 특유의 긴박감과 액션도 가미했다"고 설명했다. 티켓가격 1만원. 문의 02-3999-1114. /김미은기자 mekim@

한국지방신문협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인터뷰

"5·18아카이브 구축사업 적극 지원"

중앙·지방인사 교류 확대… 수출진흥 지역 협의체 구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광역의원 보좌인력 등 제도 개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18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뷰에서 "5·18 당시의 생생한 기록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배우고 기록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5·18 종합역사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유 장관은 또 "중앙과 지방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안행부와 지방의 과장급 등 핵심직위 간 인사교류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앞으로 인사교류는 안행부 중심에서 교류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도움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가 지방분권 등 자치단체 현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제도화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안행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산업통상부·관세·국세청 등 수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참석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역 협의체를 만들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지난 4월23일자 안행부 본부 실·국장 및 시·도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에서 호남이 소외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인사의 기준은 해당 직위에 최고의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었으며, 소위 영·호남, 충청 등 지역적 배제나 배려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재임기간 내내 일 잘하는 안행부를 만들기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와 지나치게 수평적 균형을 강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부딪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모두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 효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지방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 또 목표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방안은.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말로는 지방자치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 중앙정부가 특히 그래 왔다. 안행부의 3대 목표 중 하나가 성숙한 자치다. 자율과 책임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호화청사와 선심성 축제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서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해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개인 보좌인력 지원 등 지방의회 관련 주요 제도를 개선하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청 이전 7년… 목포·무안 인구 1만6600명 증가

지역경제 좋아졌지만 원도심 활력 잃었다

광주 동구 1만2100명 줄어

전남도청 이전 이후 목포시와 무안군의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확대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 목포 원도심 활력 저하 등 부정적인 현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내놓은 '전남도청 이전 이후의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광주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한 이후 인구가 1만3000여명 증가했고 기반시설도 확충됐다.

도청 이전 뒤 무안군 인구는 1만3200명이 늘었다. 도청 인근인 목포시 인구도 34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남도청이 있던 광주시 동구 인구는 1만2100명이 줄었다.

목포본부는 도청 이전 뒤 목포와 무안지역에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돼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35개 관계기관이 남악 신도시로 옮겼고 지역 내 총생산도 증가했다.

2006~2010년 목포시와 무안군의 지역 내 총생산은 각각 연평균 5.2%, 6.9% 늘어 도내 전체 증가폭(4.0%)을 웃돌았다. 목포는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늘었고, 무안군은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이전에 따라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목포와 무안의 사업체도 466개 늘었다. 대형 소매점 매출액은 2006년 1933억원에서 지난해 3220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삼향읍 등 남악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 160만원과 172만원으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목포본부 관계자는 "도청 이전으로 공공과 행정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소득이 늘어났지만 2011년 이후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목포 원도심 인구 감소 및 상권의 신도심(하당) 이동으로 원도심의 활력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MBC 새 사장에 김종국씨 내정

MBC 새 사장에 김종국(57)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는 2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사장 후보 4명을 면접하고서 투표를 통해 김종국 대전MBC 사장을 MBC 사장 최종 후보로 뽑았다.

구영회 전 MBC미술센터 사장, 안광한 MBC 부사장, 최명길 MBC보도국 유럽지사장과 함께 후보에 오른 김 사장은 이날 투표에서 사장 선임 요건인 재적 이사 9명의 과반수 지지를 얻었다.

최창영 방문진 사무처장은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인 5표가 나와서 개표를 중단했다"며 "정확한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김종국 대전MBC 사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LA특파원과 경제부장, 정치부장, 기획조정실장, 마산MBC·진주MBC 겸임 사장, MBC경남 초대 사장 등을 거쳤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김재철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10개월이다.

/연합뉴스

광주U대회 다목적체육관 기공식

2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다목적체육관 기공식이 열렸다.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1117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7723㎡, 관람석 8327석 규모로 오는 2015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OTRA 글로벌 마케팅 인턴 참가자 모집 안내

1. 사업목적
○ 취업연계형 글로벌 인턴파견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innovative Economy) 기반 구축에 일조
○ 고졸, 지방대,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등의 참여율 확대를 통해 스펙초월 글로벌 취업연계 사업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파견인원 : 100명
○ 파견지역 : 27개국 35개 지역
– 중국, 아대양주, 중남미, 중동 · 아프리카, CIS, 일본, 구주, 북미 등
• 특정국가의 경우, 고졸, 다문화가정 지원자 우선 선발
• 지방대, 미취업 6개월이상 지원자 우선 선발
○ 신청자격
– 인턴후 현지취업이 가능한 자
– 파견국 언어 또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자
– 병역문제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근 5년간 정부인턴쉽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자

3. 참가신청 방법
○ 신청마감 기한 : 2013. 5. 10일(금)
○ 신청방법 : KOTRA 글로벌 인턴쉽 카페를 통해 확인
–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kotragip
○ 문의처 :
– 담 당 : KOTRA 글로벌인재사업단 이민정
– 전 화 : (02) 3460-7343
– 이메일 : helen0929@naver.com

요리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